

캐나다 방송통신시장 현황: CRTC의 2013년 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

권 용 재*

1. 개요

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CRTC¹⁾는 2013년 9월(2014년 1월 최종 개정됨) Communications Monitoring Report 2013(이하 CMR)을 발간했다. CMR은 방송통신시장 연차보고서로서 캐나다의 TV, 라디오, 방송 플랫폼 등의 방송분야와, 전화, 인터넷, 데이터/로밍, 전용회선, 이동통신 등의 유/무선 통신분야의 가장 포괄적인 현황과 전망을 보고하고 있다. CRTC는 이 보고서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방송통신 분야의 창을 제공하고 방송통신 규제정책과 관련 이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공개적인 토론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. 또한 CRTC 방송통신 규제제도의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, 캐나다가 세계적인 수준의 방송통신 시스템의 중심에 서기 위한 자가진단의 목적으로 매년 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.²⁾

본고는 CMR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, 캐나다 방송통신시장과 세부시장의 매출액, 성장률, 점유율, 보급률과 같은 시장성과와 관련된 주요 지표를 검토하여 캐나다 방송

*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원, (02)570-4355, yjkwon@kisd.re.kr

1) Canadian Radio-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

2) 방송통신위원회(2013)

통신시장의 개괄적인 현황과 전망을 정리하고자 한다.

2. 캐나다 방송통신서비스 개황과 특징

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광활한 영토를 가진 것에 비해 인구는 약 3,500만 정도로 우리나라보다도 적다. 한편 인구 3억의 초강대국 미국은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다 방면에서 캐나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, 방송통신 분야 역시 그 영향이 상당하다. 이에 따라 캐나다 방송통신시스템 제도의 중요한 초점 중 하나는 미국에 대한 캐나다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이며, 이를 위해 자국 콘텐츠 보호와 육성에 힘쓰고 있다. 캐나다 방송통신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영어권과 불어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. 영어와 불어 2개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캐나다는 방송통신시장 역시 영어시장과 불어시장으로 이원화하여 구분하고 있다.

2012년 캐나다 국민들은 가구당 월 평균 185 달러(캐나다 달러)를 커뮤니케이션(communications) 서비스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전년도 181 달러에 비해 2.5% 증가한 수치다. 2012년 전체 커뮤니케이션 지출액 중 유선, 인터넷, 무선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서비스의 점유율이 72%에 달했다. 한편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전년대비 0.8% 감소했다.

전체 커뮤니케이션 연결(connect)의 44%가 무선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텔레비전 플랫폼(television distribution)과 지역전화서비스(local telephone services)가 각각 19%로 그 뒤를 이었고, 나머지 18%는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.

(1) 제작(Create)

2011~12년³⁾ 캐나다 방송시장은 약 34억 달러를 자국 콘텐츠에 투자했다. 상업 라디오 방송사들은 자국 콘텐츠 개발에 전년대비 2% 늘어난 5,500만 달러를 투자했다

3) 방송연도 2011년 4월~2012년 3월

데 이는 전체 매출액의 3.4%에 해당하는 수치다.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전년대비 9.6% 증가한 29억 달러를 자국 프로그램 편성에 사용했다. 이는 전체 편성 지출액의 68%에 해당한다. 2012년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은 방송사들의 가장 큰 지출로 매출액의 64%에 해당하는 수치였다.

2011~12년 케이블과 위성 사업자들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매출의 6%는 캐나다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 지정되었다. 이중 41%는 캐나다 미디어 기금(CMF)에, 24%는 케이블 지역채널 및 기타 지방매체에, 22%는 지역 프로그램 개선 기금(LPIP)에, 13%는 독립 기금에 지정되었다.

영어방송시장에서 캐나다 국민들의 자국 텔레비전서비스 시청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시청점유율은 2009~10년 87.9%, 2010~11년 86.7%, 2011~12년 86.0%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. 반면 불어방송시장의 자국 텔레비전서비스의 시청 점유율은 2009~10년 98.4%, 2010~11년 98.5%, 2011~12년 98.6%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.

(2) 접속(Connect)

CMR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들은 다양한 수단과 기기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접하고 캐나다와 전 세계에서 커뮤니케이션(communications)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2012년 캐나다 전체 가구의 86%가 케이블 또는 위성 텔레비전 서비스에 가입하였고, 78%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. 같은 해 캐나다 국민의 81%가 이동통신 가입자였는데, 그 중 52%는 스마트폰이나 테블릿과 같은 최신 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2012년 캐나다 국민의 55% 이상이 온라인 뉴스를 읽었고 컴퓨터나 무선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TV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011년 유선 및/또는 무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캐나다 가구는 99.3%로 전년대비 변화가 없었다. 그러나 2011년 유선전화 가입가구는 2010년 89.1% 대비 2.9% 감소해 86.5%로 나타났고, 무선전화 가입가구는 78.2%에서 79.4%로 증가해 점차 무선서

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. 이 트렌드는 연소득 2,8000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 유선전화 가입가구는 7.5% 감소했고, 무선전화 가입가구는 4.4% 증가했다.

공중전화의 개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. 2012년 공중전화 서비스의 매출은 2011년 대비 14% 줄어들었고, 통화량은 4% 감소했다. 천 가구당 공중전화의 개수도 2011년 5.4개에서 2012년 5.1개로 5.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대부분의 캐나다 국민들은 기본(1.5 Mbps) 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2011년 CRTC는 최소 다운로드 속도를 5 Mbps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인터넷사업자들에게 2015년까지 이 속도를 제공하도록 했다. 이후 5 Mbps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가용성은 87%에서 94%로 증가했다. 대체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민들은 50 Mbps에서 99 Mbps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는 반면, 농촌지역의 캐나다 국민들의 같은 수준의 인터넷서비스 접속률은 12%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.

(3) 보호(Protect)

CRTC는 소비자의 불만과 의견 수렴을 통해 방송통신시장 규제체계의 효과를 평가하고 사업자들이 캐나다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잘 충족시켜주고 있는지를 체크한다. 2013년 3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CRTC는 31,300건의 문의 및 불만 사항을 접수받았다. 이 중 55%는 방송서비스 관련 이슈였고 나머지 45%는 통신서비스에 관련된 문제였는데, 방송서비스 관련 이슈는 대부분 방송출연자의 공격적인 코멘트에 관한 것이었다.

한편 통신서비스 불만 사항(통신서비스불만위원회(CCTS)가 접수 받은 12,000건 포함)의 39%는 무선서비스, 20%는 텔레마케팅, 13%는 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것이었다. 접수된 불만들의 42%는 청구서 오류, 16%는 계약/약정상의 문제, 12%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.

3. 방송통신시장 현황

2012년 캐나다 방송통신시장 매출액은 2011년 594억 달러에서 2.3% 증가한 607억 달러에 달했다. 이 중 통신시장 매출액이 439억 달러로 72%를 차지했고 방송시장 매출액은 168억 달러(28%)를 차지했다. 방송시장 매출액 중 방송 플랫폼(BDU: Broadcasting Distribution Undertakings)부문 매출액이 87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, TV부문이 65억 달러, 라디오부문 16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. 통신시장 매출액은 2011년 대비 2.7% 증가하였으나, 방송시장 매출액은 1.3% 증가하는데 그쳤다.

〈표 1〉 방송통신서비스 산업 매출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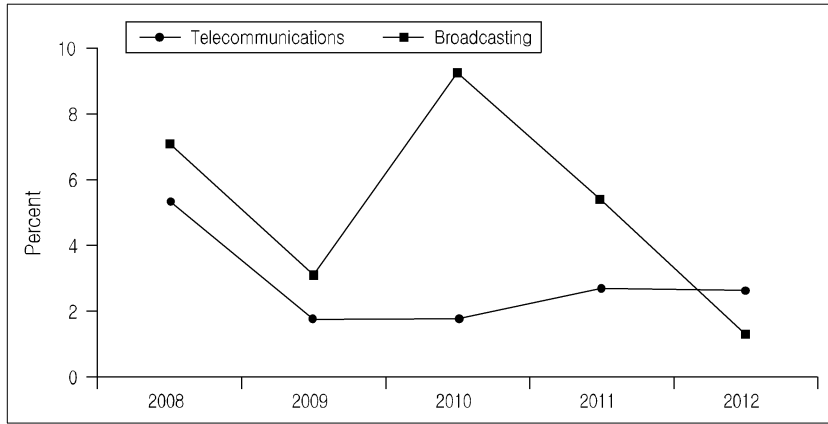
(단위: 10억 달러)

	2011	2012	증감
방송통신시장	59.4	60.7	2.3%
1. 통신시장	42.8	43.9	2.7%
2. 방송시장	16.6	16.8	1.3%
(1) 라디오	1.6	1.6	0.4%
(2) TV	6.4	6.5	1.9%
(3) BDU(방송 플랫폼)	8.6	8.7	1.1%

자료: CRTC(20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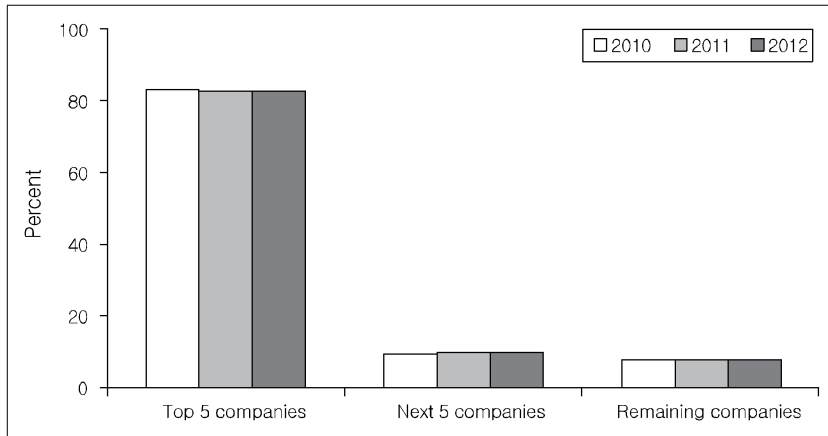
[그림 1]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통신시장(Telecommunications)과 방송시장(Broadcasting) 매출액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. 방송시장 매출액 성장률은 2009년 약 3%에서 2010년 9% 이상까지 증가한 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2012년에는 1.3%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통신시장 매출액 성장률은 2009년 2% 미만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처음으로 방송시장 성장률을 추월하여 2.7%를 기록했다.

[그림 1] 캐나다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의 매출액 성장률 추이(2008~2012)



자료: CRTC(2013)

[그림 2] 캐나다 방송통신시장 매출액 점유율 추이(2010~2012)



주: 왼쪽이 상위 5대 사업자 점유율

자료: CRTC(20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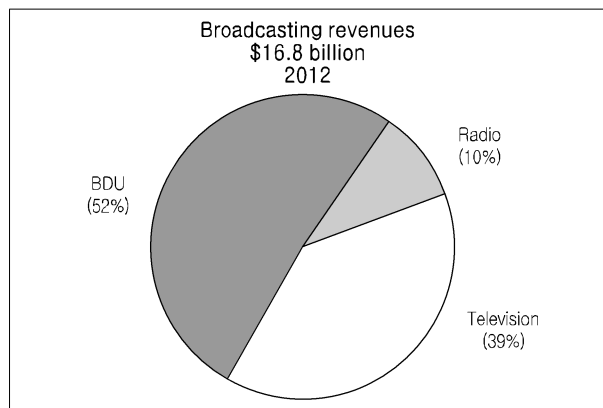
캐나다 방송통신시장은 상위 5대 사업자(Bell Canada, Quebecor, Rogers, TCC, Shaw)의 독점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. 2012년 방송통신시장 총 매출액 607억 달러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2%에 달했다. 그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5개

사업자(Astral, Bragg, Cogeco, MTS, SaskTel)가 10%를 차지했고, 나머지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8% 정도였다. 앞의 [그림 2]는 이런 점유율의 추이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.

(1) 방송시장 현황

2012년 캐나다 방송시장 전체 매출액은 168억 달러를 기록했다. 이중 방송 플랫폼(BDU) 매출액이 52%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고, 텔레비전부문이 39%, 라디오 부문은 10% 정도였다. 방송시장 역시 상위 5대 사업자(Astral, Bell, Quebecor, Rogers, Shaw)의 매출액이 81%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나머지 사업자들의 매출액은 32억 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 3] 2012년 방송시장 매출 점유율



자료: CRTC(2013)

<표 2>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캐나다 방송시장 매출액을 부문별로 세분화하여 보여주고 있다. 2012년 라디오부문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0.4% 증가한 16.2억 달러였는데 이 중 FM라디오 매출액이 13.1억 달러, AM라디오 매출액이 3.1억 달러였다. AM라디오 매출액의 연평균성장률은 -1.9%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, FM

〈표 2〉 방송시장 매출액(2008~2012)

(단위: 백만 달러)

		2008	2009	2010	2011	2012	CAGR
라디오	AM	331	306	307	311	306	-1.90%
	성장률	0.4	-7.4	0.4	1.2	-1.6	
	FM	1,260	1,201	1,244	1,302	1,314	1.00%
	성장률	7.5	-4.7	3.6	4.6	0.9	
	라디오 총계	1,591	1,508	1,552	1,613	1,620	0.40%
	성장률	5.9	-5.2	2.9	3.9	0.4	
텔레비전	CBC	412	392	450	500	508	5.40%
	성장률	15.7	-4.9	14.8	11.1	1.6	
	민영방송사	2,138	1,971	2,142	2,144	2,038	-1.2%
	성장률	-1.5	-7.8	8.7	0.1	-5	
	유료, PPV, VOD, 전문 서비스	2,929	3,121	3,475	3,748	3,968	7.90%
	성장률	7.3	6.5	11.3	7.9	5.9	
	텔레비전 총계	5,480	5,484	6,067	6,392	6,514	4.40%
	성장률	4.3	0.1	10.6	5.4	1.9	
BDU (유료방송 플랫폼)	케이블/IPTV	4,762	5,123	5,610#	5,923#	6,058	6.20%
	성장률	9.9	7.6	9.5	5.6	2.3	
	위성/무선케이블	2,036	2,196	2,385	2,532	2,492	5.20%
	성장률	11	7.8	8.6	6.2	-1.6	
	비보고BDU	116	122#	136#	145#	145	5.80%
	성장률	-13.9	5.4	12	6.4	0	
	BDU 총계	6,914	7,440	8,132	8,600	8,696	5.90%
	성장률	9.7	7.6	9.3	5.8	1.1	
방송 총계	13,987	14,432	15,751	16,605	16,829	4.70%	
성장률	7.1	3.2	9.1	5.4	1.4		

주: 1) CBC는 의회 보조금(공적 자금)을 제외한 광고와 기타 상업적 사업 매출액임

2) 무선케이블은 다지점 분배 서비스 MDS(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)임

자료: CRTC(2013), 재구성

라디오의 연평균성장률도 1%에 그쳤다. 텔레비전부문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1.9% 증가한 65.1억 달러를 기록했고 연평균성장률은 4.4%에 달했다. 캐나다 국영방송사인 CBC의 매출액은 2009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2012년 5.1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연평균 5.4%의 성장률을 기록했다. 민영방송사들은 2011년 대비 5.0%나 하락한 20.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연평균성장률도 -1.2%를 기록했다. 반면 PPV, VOD, 유료, 전문 서비스 등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5.9% 성장해 39.7억 달러에 달했고 연평균성장률도 7.9%를 기록했다. 2012년 방송 플랫폼(BDU)의 매출액은 87억 달러였고 연평균성장률은 5.9%였으나, 2008년 9.7%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서서히 감소하여 2012년에는 1.1%까지 떨어져 성장속도가 차츰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위성/무선케이블 서비스 매출은 2008년 11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차츰 감소하여, 2012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(-1.6%)을 기록했다.

1) 방송 플랫폼(BDU) 시장

2012년 캐나다에는 케이블, IPTV, 위성, 무선케이블(MDS)⁴⁾ 등 4종류의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했다. 방송 플랫폼 시장 역시 5개의 대기업들이 케이블 설비와 위성을 이용하여 전체 매출액의 88%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상위 4개 케이블 사업자의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은 59%, 위성 사업자는 24%를 기록했다.

케이블 사업자의 2012년 매출액은 약 54.7억 달러로 전체 방송 플랫폼 매출액의 62.9%를 차지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, 2008년 67.3%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. 201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1.3억 달러 감소하여 -2.3%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. 위성/무선케이블 사업자는 2008년부터 29% 선을 유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2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28.7%로 점유율이 감소했다. 이와 대비해 IPTV 사업자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. 2008년 1.6%로 시작한 점유율은 2012년 5.8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6.7%까지 증가했다. 뿐만 아니라 매년 40~50%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2012년에는 무려 81.6%의 매출액 성

4) 무선케이블(MDS)는 다지점 분배 서비스(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) 임

장을 기록했다.

〈표 3〉 캐나다 방송 플랫폼별 매출액 추이(2008~2012)

(단위: 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CAGR
케이블	4,653.50	4,971.30	5,402.2	5,600.9	5,472.90	4.10%
점유율	67.3	66.9	66.4	65.1	62.9	
성장률	9.3	6.8	8.7	3.7	-2.3	
IPTV	108.4	151.4	207.8	322.3	585.3	52.50%
점유율	1.6	2	2.6	3.7	6.7	
성장률	43.3	39.8	37.2	55.1	81.6	
위성/무선케이블	2,036.20	2,195.60	2,385.30	2,532.1	2,492.40	5.20%
점유율	29.5	29.6	29.3	29.4	28.7	
성장률	11	7.8	8.6	6.2	-1.6	
비보고 사업자	115.6	121.8	136.4	145.0	145	5.80%
점유율	1.7	1.6	1.7	1.7	1.7	
성장률	-13.9	5.4	12	6.4	0	
플랫폼 합계	6,913.60	7,440.1	8,131.7	8,600.3	8,695.70	5.90%
성장률	9.7	7.6	9.3	5.8	1.1	

주: 1) 각 연도는 9/1~8/31 1년 기준
 2) 비보고 사업자 자료는 추정치임
 자료: CRTC(2013), 재구성

방송 플랫폼 가입자 수 추이 역시 비슷한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다. 2012년 케이블 가입자 수는 약 768만 명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(64.2%)을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약 17만 6,000명 줄어들어 -2.2%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. 2008년 70.1%를 기록했던 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~12년 연평균 0%의 성장률을 보여 캐나다의 케이블 가입자 수가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(2012년 23.6%)을 차지하고 있는 위성/무선케이블 가입자 수 역시 2012년 약 283만

명으로 전년대비 1.8% 감소했고 2008~12 연평균성장률은 1.1%에 불과했다. 반면 IPTV 가입자 수는 지난 4년간 45.3%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며 2008년 22만 5,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를 2012년 100만 명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. 캐나다 전체 방송 플랫폼 가입자 수는 2012년 약 1,197만 명으로 연평균 2.2%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.

〈표 4〉 캐나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추이 2008~2012

(단위: 천 명)

	2008	2009	2010	2011	2012	CAGR
케이블	7,691.70	7,782.70	7,877.0	7,858.5	7,682.60	0.00%
점유율	70.1	69.4	68.3	66.3	64.2	
성장률	2.2	1.2	1.2	-0.2	-2.2	
IPTV	225	311.4	416.9	657.3	1,002.40	45.30%
점유율	2.1	2.8	3.6	5.5	8.4	
성장률	35.4	38.4	33.9	57.6	52.5	
위성/무선케이블	2,699.50	2,760.90	2,862.10	2,877.40	2,825.70	1.10%
점유율	24.6	24.6	24.8	24.3	23.6	
성장률	2.6	2.3	3.7	0.5	-1.8	
비보고 사업자	350.2	365.2	371.4	463.1	463.1	7.20%
점유율	3.2	3.3	3.2	3.9	3.9	
성장률	-18.4	4.3	1.7	24.7	0	
플랫폼 합계	10,966.40	11,220.10	11,527.4	11,856.3	11,973.80	2.20%
성장률	2	2.3	2.7	2.9	1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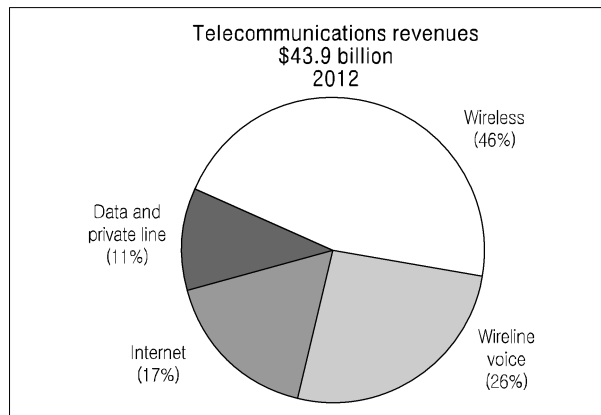
주: 1) 각 연도는 9/1~8/31 1년 기준

2) 비보고 사업자 자료는 추정치임

자료: CRTC(2013), 재구성

4. 캐나다 통신시장 현황

[그림 4] 통신시장 매출액 2012



자료: CRTC(2013)

2012년 캐나다 통신시장 매출액 439억 달러 중 10대 사업자(계열사 포함)의 점유율은 93%에 달했다. 나머지 사업자들의 매출액은 29억 달러 미만이었다. 통신시장 내의 모든 세부시장(지역유선전화(local), 시외유선전화(long distance), 인터넷, 데이터, 전용회선(private line), 무선(wireless))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87%를 기록한 반면 이중 1개의 시장에서만 영업하는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1%로 나타났다.

무선부문은 통신시장 매출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함과 동시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었다. 2012년 무선부문 점유율이 46%를 기록했고, 그 뒤로 유선음성 26%, 인터넷 17%, 데이터/전용회선이 11%를 차지했다. 무선부문 매출액은 2008년 160억 달러에서 2012년 204억 달러로 성장해 연평균성장률 6.5%를 기록했다. 유선부문 매출액은 2008년 242억 달러에서 2012년 235억 달러로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다. 특히 시외유선전화(long distance) 매출의 연평균성장률은 -10.3%로 시장이 침체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. 유선음성 전체 매출액도 전년대비 6% 감소

해 112억 달러를 기록했고, 연평균성장률은 -4.8%를 기록했다.

〈표 5〉 통신시장 세부부문별 매출액 추이(2008~2012)

(단위: 10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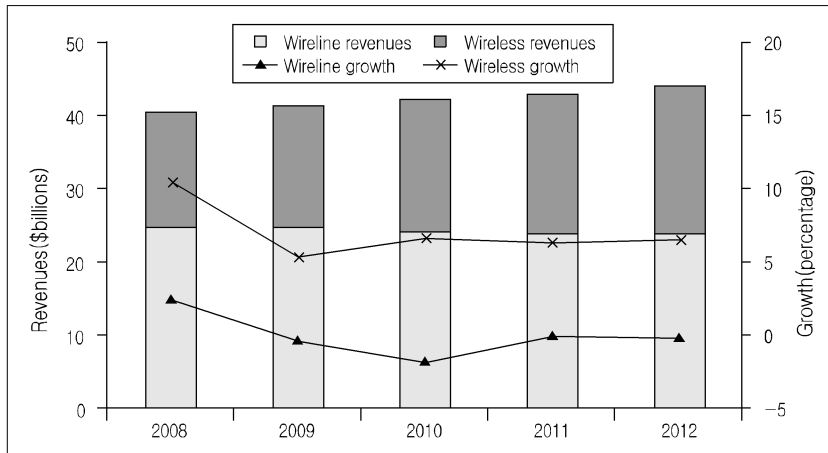
			2008	2009	2010	2011	2012	CAGR
유선	음성	시내전화	9.6	9.4	9.1	9.0#	8.6	-2.60%
		성장률	0.1	-1.9	-2.7	-1.9	-4.2	
		시외전화	4.2	3.9	3.4	3.0#	2.7	-10.30%
		성장률	-3.8	-7.1	-11	-11.8	-11.2	
		전화 합계	13.7	13.2	12.6	12	11.3	-4.80%
		성장률	-1.1	-3.5	-5	-4.6	-6	
	비음성	인터넷	6.1	6.5	6.8	7.2	7.6	5.60%
		성장률	9.1	6.1	4.2	6.3	5.9	
		데이터/전용회선	4.3	4.3	4.3	4.5	4.7	1.80%
		성장률	4.4	-0.5	0	3.5	4.1	
		비음성 합계	10.5	10.8	11.1	11.7	12.3	4.10%
		성장률	7.1	3.4	2.5	5.3	5.2	
	유선 합계		24.2	24	23.7	23.7	23.5	-0.60%
	성장률		2.3	-0.5	-1.6	0	-0.5	
무선		16	16.9	18	19.1	20.4	6.20%	
성장률		10.4	5.3	6.6	6.2	6.5		
합계		40.3	41	41.7	42.8	43.9	2.20%	
성장률		5.4	1.8	1.8	2.7	2.7		

자료: CRTC(2013), 재구성

2012년 전체 통신시장에서 무선부문 점유율은 46%, 유선부문 점유율은 54%로 유선부문이 약간 앞서 있었다. 그러나 유선부문은 2008년 2.3%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, 2012년까지 0%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며 하락세를 걷고 있는 반면, 무선부문은 2008년 10.4%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꾸준히 5~6%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어, 조만간 통

신시장에서 무선부문의 점유율이 유선부문 점유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.

[그림 5] 통신시장에서 유무선 시장 매출액과 성장률 추이(2008~2012)



자료: CRTC(2013)

(1) 무선시장(Wireless)

무선네트워크는 캐나다 지리적 영역의 20% 정도를 커버하고, 인구의 99%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.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를 지원하는 고급 무선 네트워크 역시 인구의 99%를 커버할 수 있으나, LTE 네트워크는 인구의 72%만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무선부문 매출액은 2011년 191억 달러에서 2012년 204억 달러로 6.5% 증가했으나, 가입자 수는 2,740만 명에서 2,790만 명으로 1.8% 증가하는데 그쳤다. 무선 가입자 수는 2008~12년 6%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했으나, 2008년 9.0%의 증가율을 보인 후 성장 속도가 점차 느려져 2012년에는 1.8%까지 감소했다.

2012년 캐나다 무선시장 ARPU는 60.7 달러로 2011년 58 달러에서 4.7% 증가했으나 4년 전 2008년 60.1 달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〈표 6〉 무선시장 매출액(백만 달러)/가입자 수(천 명)/ARPU(달러/월) 추이(2008~2012)

	2008	2009	2010	2011	2012	CAGR
매출	15,940.30	16,804.00	17,931.20	19,056.30	20,316.60	6.30%
성장률	10.50%	5.40%	6.70%	6.30%	6.60%	
가입자 수	22,092.50	23,811.90	25,825.40	27,387.20	27,888.00	6.00%
성장률	9.00%	7.80%	8.50%	6.00%	1.80%	
ARPU	60.1	58.8	57.9	58	60.7	
성장률	1.30%	-2.20%	-1.50%	0.20%	4.70%	

자료: CRTC(2013), 재구성

전년대비 저조한 가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6.5%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무선부문의 주요 성장 동력은 데이터와 로밍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. 2011년 약 64.9억 달러를 기록했던 데이터/로밍서비스 매출액은 2012년 79.9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23.1%의 성장률을 나타냈다. 2008년 34.3억 달러에 불과했던 데이터/로밍서비스 매출액은 23.5%의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며 4년 만에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, 일반음성(Basic voice) 서비스 매출액은 2008년 104.5억 달러에서 2012년 95.1억 달러까지 감소해 -2.4% 성장률을 기록했다.

〈표 7〉 무선시장 부문별 매출액 추이(2008~2012)

(단위: 백만 달러)

	2008	2009	2010	2011	2012	CAGR
일반 음성	10,481.90	10,323.50	10,343.70	9,855.50	9,510.90	-2.40%
성장률	3.60%	-1.50%	0.20%	-4.70%	-3.50%	
장거리 음성	1,224.00	1,204.90	1,276.50	1,289.50	1,257.80	0.70%
성장률	13.80%	-1.60%	5.90%	1.00%	-2.50%	
Paging	96.1	89.2	71.9	67.1	50.2	-15.00%
성장률	3.50%	-7.20%	-19.50%	-6.60%	-25.10%	
단말기/핸드 헬드 장치	803	1,106.30	1,171.80	1,419.30	1,556.70	18.00%
성장률	14.80%	37.80%	5.90%	21.10%	9.70%	

		2008	2009	2010	2011	2012	CAGR
데이터/ 기타	데이터	n.a	n/a	3,885.70	5,066.40	6,257.90	n/a
	성장률				30.40%	23.50%	
	로밍(음성)	n.a	n/a	776.1	830.9	799	n/a
	로밍(데이터)	n.a	n/a	390.6	525.3	784.6	n/a
	로밍 합계	n.a	n/a	1,166.70	1,356.20	1,583.60	n/a
	성장률				16.20%	16.80%	
	기타	n.a	n/a	86.9	69.3	149.7	n/a
	합계	3,431.40	4,169.20	5,139.30	6,491.90	7,991.20	23.50%
	성장률	35.20%	21.50%	23.30%	26.30%	23.10%	
합계	16,036.40	16,893.20	18,003.00	19,123.40	20,366.80	6.20%	
성장률	10.40%	5.30%	6.60%	6.20%	6.50%		

주: 핸드 헬드 장치(Hand-held devices)는 휴대용 기기를 의미
 자료: CRTC(2013), 재구성

5. 결 어

본고는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CRTC가 발간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,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의 매출액과 성장률 등 주요 지표들을 정리하여 그 트렌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CRTC는 연차보고서를 통해서 캐나다의 방송통신 시스템이 자국민들에게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. 2012년 캐나다 국민들은 방송통신 서비스에 가구당 월 평균 185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송통신시장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2.3% 증가한 607억 달러를 기록했다.

방송시장에서는 신규 서비스인 IPTV의 성장이 두드러졌다. 2012년 매출액 점유율은 6.7%로 아직 낮은 편이나, 2008~12년 연평균성장률이 무려 52.5%에 달했고, 특히 2012년에는 전년대비 80%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. 가입자 수 역시 45.3%의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며 201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. 반면 기존 서

비스인 케이블과 위성 서비스는 매출액과 가입자 수 모두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고 2012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.

통신시장에서는 유무선 대체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다. 무선부문 매출액은 2008년 160억 달러, 10.4%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매년 5~6%의 성장을 나타내며 2012년 204억 달러를 달성했다. 반면, 유선부문 매출액은 2008년 이후 0% 이하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며 2008~12년 연평균성장률이 -0.6%에 그쳐 상당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. 향후 이 같은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2012년 46%였던 무선부문 점유율이 같은 해 54%를 기록했던 유선부문 점유율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.

IPTV, LTE 데이터, 로밍 등의 신규서비스들은 장기간 시장을 장악해왔던 기존서비스들을 위협함과 동시에 캐나다 방송통신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참고문헌

- 방송통신위원회 (2013),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.
CRTC (2013). "Communications Monitoring Report".